

조선초기 경복궁 수리에서 세종의 역할

김 동 욱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 서

세종은 조선왕조 건국 초기에 나라의 제반 제도를 바로잡고 왕조 5백년 통치의 기틀을 다진 군주로 평가된다. 세종 재위 중에는 국가의 의례인 五禮가 정비되고 각종 제도가 갖추어졌으며 음악이 다듬어지고, 과학기술을 창달하고 한글을 창제했다. 이를 통해서 조선왕조 통치의 기틀이 완성될 수 있었다.

경복궁의 면모가 일신되고 전각이 조선왕조 정궁에 걸맞은 격식을 갖추게 된 것도 세종 때였다. 세종은 한 동안 빈 궁궐로 있던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또 새 건물을 지으면서 궁의 면모를 갖추었다. 세종조의 경복궁 수리는 단순히 건물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문제로 그치지 않았다. 건물의 수리에는 국가적 의례인 오례의 수행 공간을 만든다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경복궁을 조선왕조 정궁 다운 궁궐로 일신시킨다는 것이었다. 궁터가 불길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궁으로써의 경복궁의 위상을 다졌다.

반면 세종은 재위 후년으로 가면서 국사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고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국사의 대부분을 세자에게 위임하고 경복궁 안에 자신이 머물 후궁을 지으려고 한 점이나, 궐 안에 불당을 세우려고 한 시도는 재위 중반기까지의 세종의 모습과는 상반

된 것이었다. 경복궁의 수리나 전각 신축의 문제 속에는 이제까지 국가 제도를 바로 잡으려는 군주의 모습과는 다른 세종의 인간적인 모습도 엿보인다.

세종조에 들어와 경복궁이 비로소 정궁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음은 기존의 여러 문헌에서 언급해왔다.¹⁾ 다만 그 구체적인 공사 내용은 아직 충분히 고찰되지 못한 점이 있다. 건물 수리와 오례와의 관련, 경복궁 터의 길흉론에 대한 왕의 대처도 충분히 언급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세종 말년에 있었던 후궁 건설이나 불당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한 점이 있다. 세종조의 경복궁 수리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세종 재위 중반까지의 궁궐 정비와 함께 세종 말년의 후궁이나 불당 건립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세종조 경복궁 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예제와 관련한 수리 공사의 의미와 궁궐 터에 논의, 그리고 말년의 후궁 및 불당 건설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조선초기 경복궁수리에서 세종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려고 한다.

1) 세종조의 경복궁 수리에 대해서는 『서울特別市史 古蹟編』(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65)에서 실록 기사를 인용해서 과정을 정리한 바 있으며 이강근, 『경복궁』(대원사, 1998)에서도 전체적인 공사의 조망을 하였다. 특히 郭淳熙, 「宮闕運營을 통하여 본 朝鮮前期 景福宮의 配置特性에 관한 연구」(성균관대학, 석사학위논문, 1999)에서는 구체적으로 몇몇 전각의 배치형태를 추정한 복원안도 제시되었다.

내용 고찰은 전적으로 『세종실록』의 기사에 의존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본론 전개는 첫째 세종 이전과 세종대의 경복궁 수리 내용을 개관하고, 둘째 세종조 건물 수리나 신축과 오례의 의례와의 관련성을 살피고, 셋째 경복궁 터 길흉론에 대한 왕의 대처방식을 다루고, 넷째는 세종 말년 후궁과 불당 건립 문제에 대한 세종의 자세를 고찰한다. 이를 종합하여 세종조 경복궁 수리의 역사적 의의를 정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으려고 한다.

2. 세종조의 경복궁 전각 수리 및 신축

2-1 태종 이전의 경복궁

경복궁의 창건은 태조4년(1395)에 이루어졌다. 창건시의 경복궁 규모는 『태조실록』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복원도가 제시되어 있다.²⁾ 『태조실록』에 기록된 창건시 경복궁의 중요한 전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燕寢 7間, 東小寢 3間, 西小寢 3間, 외에 視事之所인 報平廳 5間으로, 이 건물들까지가 內殿이라고 했으며, 그 남쪽으로 受朝之所인 正殿 5間 외에 殿門 3間, 東西角樓 各 2間, 午門 3間이 있고 각 전각은 行廊이나 穿廊으로 둘러 쌓였다.³⁾

궁이 지어지고 나서 한 달 후에 주요 전각의 명칭이 정해졌는데, 정전은 勤政殿, 연침은 康寧殿, 동소침은 延生殿, 서소침은 慶成殿이라 하고 보평청 즉 시사지소인 便殿은 思政殿이라 했다.

궁궐이 지어지자 태조 5년 9월에 왕은 근정전에 들어가 백관으로부터 朝賀를 받았다고 한다.⁴⁾ 그러나 이 때는 아직 궁궐의 여러 시설에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그 작업은 일단 태조 6년에 와서 일단

락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6년 4월에 왕은 “궁실을 지은 것이 대개 갖추어졌으니, 미비한 것은 후일을 기다려 하고, 공역을 일체 정파하여 오직 군사를 양성하고 양식을 저축하는데 힘쓰라”는 전교를 내리고 궁궐의 감역제조에게 잔치를 베풀었다.⁵⁾

이듬해인 태조 7년에는 다시 궁궐의 외곽 울타리인 궁성을 쌓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그 공사는 정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었다. 궁성 축조 공사는 기간도 길었을 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병들어 죽은 사람이 54명이나 발생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이었다. 궁성에는 남문, 동문, 서문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이 해 9월에 태조는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 말았으며 뒤를 이은 정종은 이듬해 3월에 경복궁을 버리고 개경으로 환도하고 말았다.⁶⁾ 정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태종은 태종5년 10월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새로 조성한 離宮 昌德宮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 그러면서 오래 비워 둔 경복궁에 대해서는 태종6년과 11년에 궁궐의 수리를 명하였고⁷⁾ 12년 4월에는 새로 궁 서쪽에 누각을 짓고 이름을 慶會樓라고 했다.

결국 태조에서 태종대 사이에 이루어진 경복궁의 기본적인 윤곽은 정전과 주변의 행랑과 문, 내전을 이루는 주요 전각과 그 주변의 행랑, 궁궐 외곽을 이루는 궁성과 궁문, 그리고 경회루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2 세종 연간의 경복궁 수리와 건물 신축

제4대 세종은 재위 31년 동안의 대부분 기간을 경복궁에서 지냈다. 그러면서 선대에 이룩해 놓은 경복궁의 전각 대부분을 한 차례 이상 수리했고 새로 몇 개의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경복궁은 비로소 조선왕조의 正宮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세종이 정식으로 경복궁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 시작한 것은 세종 7년이다.⁸⁾ 이후로 세종은 재위 말년의 몇 년을 제외하고 줄곧 경복궁에 머물렀

2) 창건시 궁궐의 모습에 대해서는 杉山信三, 「高麗末李朝初における木造建築に關する研究」 (『韓國の中世建築』, 1984)에서 전체 복원안에 제시되었고 다시 내용 일부를 고친 김동욱,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 (『건축역사연구』, 15호, 1998. 6)이 있다.

3) 『태조실록』의 창건 기사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많이 남기고 있다. 특히 원문을 어떻게 읽어 읽을 것인지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강근, 4, 배치, 「근정전실축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0) 이 글에서는 우선 김동욱, 「앞글」에서 한 원문 해석에 의존하였다.

4) 『태조실록』 권8, 태조4년 10월 을미

5) 『태조실록』 태조6년, 4월 임인, 동 을묘

6) 『정종실록』 권1, 정종원년 3월 무인

7) 『태종실록』 권12, 태종6년 8월 신축

8) 『세종실록』 권28, 세종7년 4월 병오

다. 그 사이에 거의 해를 거르지 않고 끊임없이 경복궁 수리작업을 이어나갔다.

세종의 본격적인 경복궁 수리는 세종 9년의 궁성 성문 개축으로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세종 25년까지 있었던 주요한 수리 내용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참조)

우선 세종 9년에 迎秋門 수리와 東宮 창건이 있었고 이듬해 세종 10년에는 建春門을 다시 세웠으며, 세종 11년에는 사정전과 경회루를 중수하고, 세종 13년에는 光化門을 다시 세웠다. 세종 14년에는 궁궐 내에 原廟가 지어졌고 세종 15년에 근정전 기와 보수와 경회루의 도리 보수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에 강녕전을 다시 짓는 공사가 시작되고 이 해에 북문을 새로 세웠다. 세종 16년에는 隆文樓와 隆武樓를 고치고 세종 17년에 경회루 수리, 세종 19년에 내정과 강녕전 남월랑의 수리가 이루어지고 세종 20년에 欽敬閣이 세워지고 선원전이 문소전 동북쪽에 지어졌다. 세종 21년에는 동궁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실되자 곧 바로 그 해에 다시 짓는 공사가 있었고 세종 22년에 交泰殿이 지어지고 세종 25년에 동궁 繼照堂이 신축되었다.

공사의 내용으로 보면 기존 건물 중에 거의 손안댄 곳이 없을 정도로 주요 전각 대부분이 수리 대상이 되었다. 건물 유형에 따라 공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차적인 공사 대상은 성문이었다. 성문 수리에 앞서 왕은 미처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궁성의 각 문 이름을 짓도록 집현전에 명하여 궁성 남문을 광화문, 동문을 건춘문, 서문을 영추문이라 했다. 세종 9년 6월에 영추문을 수리하고 이듬해 5월에는 건춘문을 다시 세웠으며 세종 13년 4월에는 광화문을 다시 세우는 일이 이루어졌다.⁹⁾ 이로써 궁성의 세 문이 모두 개축되었다.

다시 세종 15년에 새로이 북문이 세워졌다. 이 북문설치에 대해서는 그 해 7월 21일에 왕이 영의정 등을 불러 놓은 자리에서 태조 때에 북쪽에 목책을 설치한 적이 있는데 이제 문을 설치하려 한

시 기	건물 수리 및 신축 기사
세종 9년 3월	東西十字閣을 철거하다
세종 9년 6월	迎秋門을 수리하다
세종 9년 8월	東宮을 짓기 시작하다
세종 10년 5월	建春門을 다시 세우다
세종 11년 1월	思政殿과 慶會樓를 중수하다
세종 11년 4월	사정전이 이룩되다
세종 11년 2월	새로 內樓 3칸을 짓다
세종 13년 4월	光化門이 이룩되다
세종 14년 11월	原廟(文昭殿)가 이룩되다
세종 15년 7월	北門을 만들고 닫아 잠그다
세종 15년 9월	康寧殿이 이루어지다
세종 16년 8월	隆文樓, 隆武樓를 고쳐짓다
세종 19년 3월	內庭을 수리하다
세종 19년 8월	康寧殿南月廊을 수리하다
세종 20년 1월	欽敬閣이 완성되다
세종 20년 3월	濬源殿을 옮겨 짓다
세종 22년 9월	交泰殿을 짓다
세종 25년 5월	왕세자 조회하는 繼照堂을 짓다

표) 세종조 경복궁의 건물수리 및 신축
(『세종실록』에 의함)

다는 뜻을 밝혔고 며칠 후에 의례상정소에서 왕의 뜻을 받들어 “예로부터 제왕의 궁실은 반드시 네 대문이 있는 것이오니 옛 제도에 의거하여 북문을 만들” 것을 청하여 이루어졌다. 성문의 수리와 별도로 세종 9년에는 동서 십자각의 철거가 있었다. “집이 기울어지고 쓸모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동서 십자각은 아마도 태조 7년 궁성 쌓을 때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불과 30년만에 철거한 것이다.¹⁰⁾

동궁 건설은 세종 초기의 중요한 변화였다. 본래 조선초기에 세자전은 궁궐밖에 있었고¹¹⁾ 경북

9) 광화문의 개축에 앞서 예조판서가 광화문에 섬돌이 없어서 관리들이 문 지역까지 말을 타고 오고 명나라 사신이 출입하므로 누추해서 안된다는 점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체를 쌓을 것을 건의하였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의 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입자)

10) 십자각은 동서 성벽모서리 외에 총례문 양끝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 창건시 오문 양 끝에 각루가 있었다고 했으며, 동서 십자각이 철거된 후인 세종 15년에 홍례문 서쪽십자각과 동쪽 십자각에서 부영이가 올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 10월 병자 및 『세종실록』 권70, 세종 17년 12월 입자)

11) 세자전이 궁 밖에 있었던 것은 실록의 여러 기사를 통해서 입증된다. 예를 들어 태조 8년 실록에는 당시 태상왕 즉 태조가 병이 들자 세자전으로 피병하였는데, 세자전이 창덕궁 옆에 있다고 하였다. 당시 창덕궁에 있던 태종은 세자

궁이나 창덕궁 내에 동궁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세종 9년에 와서 드디어 동궁이 창건된 것이다.

세종은 즉위 2년이 되던 해에 세자책봉을 했다.¹²⁾ 당시 왕의 나이는 불과 25세였으며 세자는 8세였다. 왕 자신이 즉위 초이고 세자의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세자 책봉을 강행한 것은 건국 초 왕실의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된 왕실을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때 지어진 동궁은 근정전 동쪽에 자리잡았고, 전각으로는 資善堂과 承華堂이 지어졌는데 자신당은 세자의 거처로 삼고 승화당에서 시강과 서연을 받도록 했다.

내전도 크게 달라졌다. 창건 시 경복궁의 내전은 강녕전과 사정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세종조의 공사를 통해서 사정전과 강녕전은 개축되었으며 특히 두 건물을 이어주던 행랑이나 천랑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세종 11년 1월 실록에는 “상림원으로 이어하였다. 사정전과 경회루를 중수하기 때문이었다.”는 기사가 보이고 같은 해 4월에는 “사정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¹³⁾ 공사 기간이 3개월을 넘었고 ‘사정전이 이루어졌다.’고 적은 것으로 미루어 사정전은 새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뒤이어 세종 15년에 강녕전의 개건이 있었다. 이 해 7월에 왕은 영의정 등을 부른 자리에서

“강녕전은 나만이 가질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만대에 전할 침전인데, 낮고 좁고 또 어두워서 만일 늙어서까지 이 침전에 거처하면 반드시 잔글씨를 보기가 어려워져서 만 가지 정무를 처결할 수가 없을 것이니, 내가 고쳐지어서 후세에 전해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겠는가.” (『세종실록』 권61, 세종15년 7월 임신)

고 의견을 물었고 신하들은 모두 찬동하였다. 강녕전 수리는 실록에 ‘改造’라고 적었듯이 완전히 건물을 새로 고쳐 짓는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당시 호조판서로 있던 안순을 강녕전 조성제조로 삼

아 공사를 맡겼고, 강녕전이 완성되자 감독한 관리들에게 말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다시 세종 19년에는 內庭을 수리하고 강녕전 남월랑도 고쳤다. 이 때 이루어진 공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강녕전 남월랑을 다시 지었다는 기사로 미루어 창건 시와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종 14년에 있었던 문소전 건립은 궁궐 안에 원묘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원묘란 종묘에 모신 신주와는 별도로 왕의 가까운 선조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이미 창덕궁에 태조를 위한 문소전과 태종을 위한 광효전이라는 두 원묘가 별도로 있었다.¹⁴⁾ 그것을 이 때 와서 창덕궁 원묘를 없애고 경복궁 안에 새로 문소전 한 건물을 세우고 신주는 합사하도록 한 것이다. 문소전은 경복궁 궁성 안 북쪽에 세웠다. 아울러 세종 20년에 문소전 옆에 역대 임금의 어진을 모신 선원전을 새로 지었다. 문소전과 선원전을 경복궁에 세운 것은 경복궁이 명실공히 왕조 정궁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간의대, 보루각, 흠경각은 모두 천문을 관측하거나 일시를 정확히 하는 것에 관련된 시설이다. 간의대는 천문관측을 하는 시설이고 보루각은 자격루라는 물시계를 두어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한 것이며, 흠경각은 그리고 여러 관측 기구를 한 곳에 모아 관측의 편의를 도모한 건물이었다. 간의대는 경복궁 서북쪽에, 보루각은 경회루 남쪽에, 그리고 흠경각은 천추전 서쪽 뜰에 세웠다. 이러한 시설을 경복궁 안에 설치한 것은 시각이나 천후를 관측하는 실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백성들을 위한 임금의 통치가 정확한 천후의 관측을 통해 한치의 차질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교태전은 세종 22년에 신축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왕이 신하들과 간단한 연회를 열어 왕과 신하 사이의 교류를 돈독히 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다. 『周易』 「泰」 편에 나오는 ‘天地交泰’라는 어휘가 지칭하듯이 이것은 천하만물이 서로 교감한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여기서는 군주와 신하의 교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¹⁵⁾

전의 북쪽 담을 파서 문을 만들고 하루 종일 시병하였다고 적었다. 또 태종 18년 실록에는 태종이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면서 ‘임금이 세자에게 국보를 주고, 연화방의 옛 세자궁으로 이어하였다.’고 하였다. 위 기사로 미루어 태종대까지는 세자전이 창덕궁 주변에 별도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2) 『세종실록』 권13, 세종3년 10월 병진

13) 『思政殿成』(『세종실록』 권44, 세종11년 4월 무인)

14) 『세종실록』 권54, 세종 13년 12월 을묘

15) 교태전의 용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고종 중건시의 교태전을 염두에 두어 왕비전으로 이해한 사례가 있지만, 적어도 세종조에 지어진 교태전은 왕비전이 아니고 군신간의 연회를 위한 건물임이 논증되었다.(곽순조, 「앞 글」 및 홍석

세종조의 경복궁 수리는 기존 건물을 거의 다 한번씩 손대는 것이었고 여기에 새로 복궁, 동궁, 교태전 외에 흙경각, 보루각 등이 추가된 공사였다. 기존 건물 가운데도 광화문, 사정전, 강녕전은 완전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었고 아울러 주변 행랑들도 크게 개축되었다. 그러나 세종조의 공사는 태조 때 창건된 궁궐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정전인 근정전을 중심에 두고 남북 축선 상에 중심전각이 놓이고 근정문에서 근정전, 사정전, 강녕전이 차례로 늘어섬에 네모난 궁성이 사면을 감싸는 경복궁의 기본 형태는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각 전각을 새롭게 다듬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태종 때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경복궁은 비로소 조선왕조 정궁으로써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고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부족하지 않은 궁궐로 완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들 여러 전각의 수리를 통해 경복궁은 창건 시에 미처 다 갖추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왕조 정궁의 격식에 걸맞은 궁궐로 거듭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3. 예제의 정비와 사정전 일곽의 변화

3-1 五禮의 정비와 궁궐

오례로 지칭되는 국가의 의례는 조선왕조에 들어와 특별히 중요시되었다. 이것은 유교이념에 입각한 정치적 권위와 질서 수립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오례는 고려시대부터 존속해 왔지만 고려 후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내용에도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례 정비는 태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태종 원년에는 그 제정을 담당하는 儀禮祥定所라는 특별 기구까지 설치하여 예조와 함께 내용의 보완에 힘을 기울였다. 세종조에 와서는 학문적으로 더 심화되고 특히 禮樂 이념에 입각한 오례의 제반 의례 절차를 확립하려고 하였다. 그 노력은 세종 말년에 와서는 거의 체제를 이루어냈고 그것이 세종 사후 세종실록에 오례라는 항목으로 실렸다.¹⁶⁾

오례 가운데 궁궐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례였다. 세종조에 정비된 가례의 항목은 모두 45항목이며 이 가운데 왕과 왕실에 관련된 것이 36항이 되었다. 이 36항목의 거의 다는 그 행례 장소가 궁궐이었다.

가례가 가장 빈번히 치러지는 건물은 근정전이였다. 왕이 참석하는 국가의 공식 행사 대부분이 여기서 거행되었다. 이 밖에 왕이 따로 신하들을 만나 예를 나누는 장소로 사정전과 근정문이 활용되었다. 왕비가 주관하는 행사는 강녕전이 그 장소가 되었으며 왕세자는 따로 동궁에서 행사를 치렀다.

가례 외에도 궁궐에서 거행되는 의례로 빈례와 군례가 있다.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빈례의 장소는 상대 국가에 따라 장소가 바뀌기는 하지만 대체로 중국 사신은 근정전에서 치르고 나머지는 근정전이나 사정전 등이 그 장소가 된다. 군례 가운데는 광화문을 행사 장소로 삼는 나례 등이 있다. 흙례 역시 궁궐과 관련되지만, 이 경우에는 고정된 건물을 지정하기 보다 일을 당했을 때의 여건에 따라 기존 건물을 적절히 선택해서 의례가 치러졌다.

결국 오례에서 적지 않은 의례가 궁궐을 그 행사 장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세종조의 오례 정비는 곧 바로 세종조의 경복궁 수리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경복궁의 주요한 전각은 창건 시부터 이러한 국가 의례를 염두에 두고 조성되었음은 물론이다. 창건 시 근정전의 규모나 월대의 설치, 넓은 전정 등은 모두 국가 의례를 치르는데 합당하도록 설계되어지고 조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세종조에 와서 의례의 제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나가면서 실제 건물과 의례 절차에서 잘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득이 건물을 고쳐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동궁을 새로 짓고, 사정전과 강녕전을 고치고 광화문을 개축하는 등의 제반 공사는 세종조 의례 제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세종조의 경복궁 수리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건물이 사정전이다.

3-2 사정전 일곽의 변화

세종조에 들어와 의례상정소와 예조는 각종 의

주, 「朝鮮朝 光海君代의 宮闈建築에 관한 研究」, 홍익대 박사학위논문, 2001) 즉, 건물 조성 이후의 사용 사례에서 입증되었을 뿐 아니라 교태의 의미도 천지만물의 교감 즉 왕과 신하의 교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16)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五禮를 中心으로-」, 一潮閣, 1991 참조

례 거행시 구체적으로 왕이 어느 전각에서부터 의례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고대의 문헌이나 중국의 사례를 고찰해서 하나씩 정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된 건물이 사정전이다. 오례 중 궁궐에서 행례가 거행되는 가례의 대부분의 의례와 일부 빈례와 군례에서 왕이 의례에 걸맞은 복장을 하고 공식적인 의례의 장소에 나타나는 것이 사정전이며 모든 의례 절차가 끝나서 왕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의례가 끝나게 되는 것도 사정전이였다. 또 왕이 정례적으로 신하들을 만나 의례를 행하는 상참의와 조참의의 장소도 역시 사정전이였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세종실록』 오례에 적힌 정초와 동지 백관조하의 순서를 보면, 행사 전날 근정전에 왕의 자리가 마련되고 행사 당일이면 모든 신하들이 근정전 뜰에 모이고 왕이 사정전에 나와서 冕服을 갖추어 입고 여를 타고 근정전에 나가게 된다. 왕이 어좌에 이르르면 신하들이 위계에 따라 차례로 사배를 행하고 왕이 교지를 내리고 나면 신하들이 천세를 세 번 외치고 다시 사배를 하고 나면 왕이 사정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행사를 마친다. 유사한 절차는 납비의, 책비, 교서를 내리는 교서반강의, 문무과 전시의 및 양로의 등에서 거행된다. 망궐례에서도 행사의 시작과 끝은 사정전이였다. 가례 외에도 군례의 대열이나 구일식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왕이 참여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서 왕의 움직임의 시작과 끝이 바로 사정전이 되는 셈이다.

편전인 사정전이 행례의 출발점이자 종결점이 되는 것은 고려 시대의 의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고려사』 지, 예에는 조하의식을 비롯한 여러 행사의 순서가 명시되고 있지만, 정전(대판전)에 왕의 자리가 놓이고 왕이 정전에 나오는 과정만이 명시되고 있을 뿐 편전에서 면복을 갈아입고 행례가 시작되거나 이곳에서 행사의 종결이 되는 등의 절차는 보이지 않는다.¹⁷⁾

조선왕조의 의례는 태조 때부터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고 태종 때 의례상정소가 설치되어 어느 정도의 정비가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의례의 모든 체제가 완비되는 것은 세종 때로 알려져 있다. 세종 자신이 의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집현전에 전문적인 학자들을 두고

예조로 하여금 중국의 고급 의례를 집중 연구시켜 그 전체 체제를 완성시킨 것이다. 국왕의 행례 시작과 끝을 사정전으로 삼은 것도 바로 세종조에 와서 체계화된 의례의 한 부분인 것이다.

사정전의 의미를 더 확실히 한 것은 역시 세종조에 와서 확정된 常參儀와 朝參儀이다. 상참과 조참은 왕이 신하들과 국사를 논하기 앞서 간단한 의례를 행하는 것으로, 매일 아침 사정전 뜰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것과 별도로 五日朝參儀라고 해서 매달 5일째 되는 날마다 근정문에서 왕이 여러 신하들과 의례를 행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상참과 조참은 태종 때까지는 뚜렷한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였는데, 세종 11년에 와서 예조에서 의례상정소와 함께 이 제도를 의논하여

“본조의 문무관은 상참의 제도가 없으며 사정전에서 계사할 적에 또한 배례가 없으니 옛날의 전례에 어긋남이 있습니다.”(『세종실록』 권44, 세종11년 4월 정유)

고 아되고 당, 송의 제도를 본 받아 문무직관이 날마다 상참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였다.¹⁸⁾ 세종실록 오례에 기록된 상참의에 의하면 어좌를 사정전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을 어좌 앞에 동쪽 가까이에 놓고 상참관의 배위를 사정전 뜰에 마련하되 영의정 이하관원은 동쪽에, 부원군 이하 관원은 서쪽에 북향하여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상참의는 실제로는 매일 거행하지 않았지만 형식상으로는 매일 국왕과 신하가 서로 예를 나누고 나서 나라 일을 보는 것을 이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처럼 사정전이 국왕이 참여하는 의례의 시작과 끝이 되면서 사정전은 중요한 시설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세종 10년경까지 사정전의 건물 여건은 이러한 달라진 의례를 수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조5년에 처음 창건될 당시 사정전의 명칭은 『태조실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평청이었으며 이 건물은 내전에 속하고 있었다. 그 후에 왕이 신하들과 나라 일을 보는 편전으로 이용되면서 건물 이름도 사정전으로 지었다. 그러나 창건시 사정전은 침전인 강녕전과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고 두 건물은 천랑으로 이어져 있었다. 오히려 사정전에서 근정전 사이에는 동서 방향으로 두 겹의 행랑이 있어서 근정전

17) 『고려사』 권 65 및 66의 지 19, 20 예, 가례 편

18) 『세종실록』 권44, 세종11년 4월 정유

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그림 -1)

세종 11년에 상참과 조참의가 제정되고 비슷한 시기에 궁궐 내 각종 의례가 정비되어 사정전이 왕의 행사 출발점이 되면서 종래의 건물 구성은 크게 고쳐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사정전 건물을 수리하여 '사정전이 이루어졌다'고 한 시점은 세종 11년 4월로, 이 달은 바로 예조가 상참의 예를 왕에게 건의한 시기이다. 이 때는 이

로 지칭되던 강녕전과 사정전이 있던 부분은 큰 변화가 초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사정전과 강녕전이 새로 지어지고 두 건물을 잇던 천랑 대신에 다른 모습의 행랑이 갖추어 졌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경복궁전도」¹⁹⁾ 등 선조 때 소실되기 전 경복궁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전하는 몇 개의 자료에 의하면 강녕전과 사정전 사이는 하나의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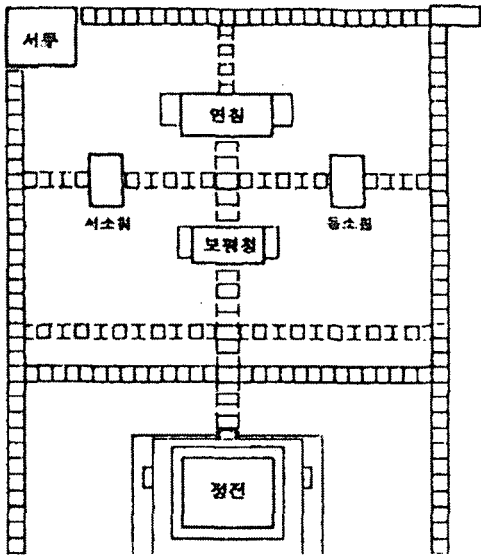


그림 1 창건시 사정전 주변 배치추정도 (김동욱,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에서)

미 상참에 대한 모든 구체적인 의례가 다 마련되어 형식적으로 국왕의 재결을 거친 것인데, 같은 달에 사정전이 새로 지어져 완성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새로 고쳐진 사정전이 상참이나 조참을 비롯한 각종 의례의 수용을 고려하여 미리 설계되고 조성되어 지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정전이 완성되고 나서 4년 후에는 강녕전이 개건되었다. 이 때의 개건은 강녕전을 완전히 새로 짓는 공사였다. 세종 19년에는 내정을 수리하고 강녕전의 남월랑을 수리하였다는 기사가 실록에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내정은 바로 강녕전 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와서 뜰을 수리하고 또 남월랑을 수리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강녕전과 사정전 사이의 행랑 구조를 크게 고친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세종 11년에서 19년 사이에 과거 내전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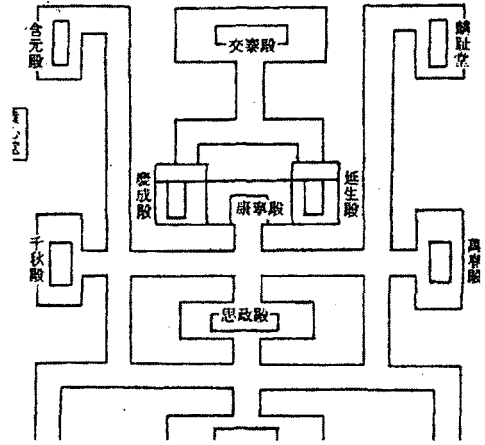


그림 2 「경복궁전도」에 묘사된 사정전 주변 모습

각이 가로 놓여 있어서 두 건물이 각각의 공간으로 구분된 모습을 전한다.(그림-2) 또 사정전과 근정전 사이도 하나의 행랑이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그림의 사정전 주변은 창건 시와는 크게 다른 것이며 이런 변화는 아마도 세종조의 개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즉, 세종조에 와서 사정전이 중요한 의례의 출발점이 되고 상참을 거행하면서 신하들이 사정전 뜰에 나오게 되자 침전인 강녕전과 사정전을 공간적으로 구분 짓는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로 보인다. 또 사정전에서 왕이 면복을 갖추어 있고 여를 타고 근정전에 이동하는 절차를 고려한다면 태조 때와 같이 두 건물 사이에 두 겹의 행랑이 있는 것이 불편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두 건물 사이 행랑 역시 그림에 묘사된 것처럼 하나로 바뀌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세종조의 사정전 일곽은 창건 시

19) 「경복궁전도」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외에 삼성출판사 박물관 소장본 등이 전하는데, 영조 때 있었던 천감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조 이후에 소실 이전 모습을 그림으로 재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사정전이 각종 의례에서 국왕이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4. 경복궁 터의 길흉론에 대한 세종의 대처

각종 의례의 절차가 제정되고 있던 세종 15년에 궁중에서는 색다른 논쟁이 오갔다. 그것은 경복궁 터가 왕이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 궁중 풍수사의 견해가 피력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비록 경복궁 자체의 수리 공사와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세종조에 들어와 경복궁의 명운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의 하나였다.

논의의 발단은 세종 15년 風水學 術士 崔楊善의 건의였다. 書雲觀 등에서 풍수와 관련한 일을 보던 최양선²⁰⁾은 이 해 7월초에 도성의 주산은 경복궁의 북쪽 산 즉 백악이 아니고 향교동 뒤 승문원 자리가 주산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이곳에 왕이 머물기 위해 창덕궁을 승문원 자리로 옮겨야 한다는 건의를 왕에게 올렸다.²¹⁾ 7월 3일 왕은 知申事 安崇善을 따로 불러 이 문제를 꺼냈다. 왕은 중신들이 직접 가서 지세를 살펴보도록 하고, 만약 양선의 건의가 옳다면 승문원 자리에 작은 궁을 새로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승문원은 외교문서를 관리 보관하던 관청으로 북부 陽德坊(계동)에 있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계동 북쪽 鷹峯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악이 주산이 아니라는 최양선의 주장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으므로 중신들도 다른 풍수사들을 모아 지세를 살피도록 하였다. 그 결과 논의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 최양선 외에 李藁, 申孝昌 등은 삼각산의 맥이 보현봉을 거쳐 승문원 터에 닿았고 주변 산세가 이곳에 절하는 형국으로, 이곳이 주산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데 반하여 궁중에서 오랫동안 풍수일을 맡아오던 李陽達, 高仲安 등은 백악이 보현봉의 맥을 잇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아래에 명당을 이루어

1만 명 군사가 들어설 만하므로 백악이 주산이라는 주장을 폈다.

결말이 쉽게 나지 않은 가운데 7월 18일에는 왕이 직접 백악산 중턱에까지 올라가 지세를 살폈으나 풍수사들의 의견은 여전히 둘로 갈라졌다. 논의가 두 갈래로 갈려있는 사이에 신하들 사이에서는 쓸데없는 주장을 펴 국정을 혼란케 한 이유를 들어 최양선에게 죄주기를 청하는 상소가 몇 차례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왕은 비록 그 건의가 옳지 않은 내용이라도 나라를 위해 건의한 사람을 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지리설이 한 가지로 통일되지 못하는데 대해서 학자들을 보강해서 이를 연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궁중에서 풍수 일을 맡아온 관리 중에는 이양달이 가장 오랜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양달은 태조 때 도성을 한양에 정할 때 서운관에 있으면서 지세를 살피는데 참여하였고 이후 태종대에도 역대 왕의 무덤 터를 잡는데 거의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²²⁾ 세종이 즉위한 이후에 이양달은 영녕전 터를 정하는 일을 맡았고 세종 14년에는 개국부터 국가에 공로가 있다하여 특별히 書雲觀 判書에 임명되었다.²³⁾ 이 때 이양달의 나이는 80이었다.

최양선은 이양달보다 훨씬 나이도 아래고 경력도 적었지만 선임자들과 다른 독자적인 풍수 의견을 내서 전부터 이양달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 세종 12년에 최양선은 헌릉 주변에 뚫린 고갯길이지맥을 손상시키므로 폐쇄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를 두고 이양달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²⁴⁾ 또 세종 14년에는 원묘의 터를 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풍수사인 고중안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²⁵⁾ 최양선에 대해서는 '성질이 거칠고 광혹한 자라서 얻을 것이 없는 자'이며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고 동료들을 배척하며 저만 못하다고 말하는 등 언어와 행동이 극히 좋지 않았다'는 평이 실록에 기록되었듯이²⁶⁾ 평판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산 논쟁이 결말이 없이 시간을 끌자 왕은 더

20) 최양선은 태종13년 풍수학생의 위치에 있으면서 장의동문을 폐쇄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고, 세종 12년에는 서운관루의 벽에 있으면서 헌릉 옆의 길을 막을 것을 건의하고 세종 14년에는 원묘의 터가 궁궐의 용맥을 손상시킨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양선의 건의는 주변의 다른 풍수사들의 이견에 부딪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1) 『세종실록』 권61, 세종15년 7월 갑인

22) 『태조실록』 권3, 태조2년 2월 을유 및 『태종실록』 권8, 태종4년 9월 정미, 『태종실록』 권 21, 태종11년 1월 기묘

23) 『세종실록』 권56, 세종14년 5월 갑술

24) 『세종실록』 권49, 세종12년 8월 기축

25) 『세종실록』 권55, 세종14년 1월 을해

26) 『세종실록』 권49, 세종12년 8월 기축

이상 이 문제에 매달리지는 않았다. 그 달 7월 29일에 영의정 황희를 비롯하여 예조판서등 중신들이 모두 백악이 주산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거듭 밝힌 이후 주산 문제는 실록에서 사라졌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한 신하가 지리의 설에 따라 경복궁 안에 못을 파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중지할 것을 청하는 상소가 있자 왕은 오랫동안 풍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혔다.

“내가 만약 지리에 혹했다고 하면 경복궁은 임금의 포로로 되고 제후국이 멸망하는 땅이라 하며, 또 침치는 자가 말하기를 ‘이 집에 거처하면 금년을 넘기지 못한다.’ 하였으나 내가 의혹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피하지 않고 거처하고 있는데 이 어찌 지리에 혹한 것이겠는가.”(『세종실록』 권61, 세종15년 윤8월 기묘)

고 말하였다.

세종은 경복궁이 불길하다는 소문에 대해 이전에도 한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다. 즉, 그 해 7월 15일 한 신하가 군주가 지리설에 이끌리지 말아야 한다는 상소를 접한 자리에서 세종은 강조해서 말하기를,

“지금 경복궁 명당은 물이 없어서 왕이 사로잡히고 제후가 멸망할 땅이라는 것이 역사책에 분명히 실려있고 또 복술하는 자의 말에 ‘거년은 나라 운수가 순하게 돌지 못하여 한 해를 넘기기 어렵다’고 하였어도 내가 오히려 의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대궐을 수리하여 잠시도 피해갈 마음이 없었으니, 어찌 지리설에 고했었다 할 것이가.”(『세종실록』 권61, 세종15년 7월 병인)

고 반문하였다.

경복궁이 군주에게 불길한 곳이라는 말은 이미 창건초기부터 나온 설이었다. 태종은 한양으로 환도하고 나서도 경복궁을 극력 기피하고 창덕궁에 머물렀다. 태조가 처음 경복궁을 지을 때 이 궁이 ‘산이 갠히고 물이 마르니 왕이 사로잡히고 족속이 멸할 것이므로 형세가 좋지 못하다’는 하윤의 말을 인용하여 경복궁의 불길함을 강조했다.²⁷⁾ 경복궁에 대한 이러한 불길한 평판은 이후에도 왕실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은 그러한 길흉설을 극복하고 경복궁을 자신의

거처로 삼은 것이다.

세종 15년의 주산설 논쟁은 한 두 달의 짧은 논의로 끝났다. 특히 왕이 새 명당 터에 마음이 이끌리어 승문원 터에 궁궐을 짓거나 경복궁을 멀리 하는 사태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경복궁을 조선왕조의 정궁으로 내 세우려는 세종의 확고한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세종은 선왕이 꺼려하던 경복궁을 주저 없이 들어갔을 뿐 아니라 이 궁에서 각종 의례를 정비하여 경복궁을 정궁으로 손색없도록 가꾸었다. 세종 15년에 있었던 주산 논쟁은 자칫 경복궁의 위상을 손상시킬 소지가 있었지만 왕은 단호하게 그 가능성을 제거하고 경복궁이 왕조의 정궁임을 다져나갔다.

5. 동궁 증축과 후궁 건립 시도

세종은 재위 24년이 되면서 정사를 세자에게 넘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 있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동궁에 계조당이라는 색다른 건물이 생겨났다. 아울러 왕은 궁궐 뒤편에 자신이 머물 별도의 궁을 지을 준비에 들어갔다. 불당의 건립도 구상되었다. 이것은 이제까지 세종이 추구해 온 경복궁 조성관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이런 왕의 계획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 말년에 빚어진 일련의 일들은 궁궐 조성을 둘러싼 왕과 신하의 전형적인 갈등 구조를 보여주며 향후 조선왕조 궁궐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세종24년 5월, 영의정 등을 부른 자리에서 왕은 눈병이 심하여 업무를 세자에게 맡기려 한다는 뜻을 밝혔고 6월에는 승지에게 자신이 소갈병과 풍습병을 앓아 왔고 또 눈병이 생겨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세자에게 업무를 맡기려 한다고 하였다. 왕은,

“나는 본래 병이 많았는데, 근래에 와서 병이 더욱 심하고, 또 왕위에 30년 동안이나 있었으므로 부지런해야 할 정사에 게으름을 피운 지 오래 되었다. 임금이 늙고 병들면世子가 정사를 攝行하는데, 이것은 古禮이다.”(『세종실록』 권100, 세종25년 4월 임인)

는 말을 했다.

아울러 세자가 직접 신하들로부터 조하나 조참

27) 『태종실록』 권27, 태종14년 6월 기사

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건물을 건춘문 안 동궁 남쪽에 지어 繼照堂이라 했다. 계조당은 세종 25년 5월에 지어졌는데²⁸⁾, 예조로 하여금 계조당에서 거행할 조참의식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세종 26년에 접어들자 왕은 외교와 군사의 중요한 업무 이외에는 거의 모든 국사를 세자에게 위임하였다. 이 해 정월 계조당에서 세자가 백관의 조참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국내의 각종 나라는 세자가 처리하였으며 일본의 사신 접견도 세자의 의해 계조당에서 치러졌다.

세자에게 여러 중요한 국사를 위임하고 난 후에 왕은 경복궁 내 간의대 자리에 後宮을 세울 것을 명했다. 세종 24(1442)년 12월 실록에 왕이 선공제조 등을 불러 別宮을 후원에 지을 것을 명한 기록이 보이는데, 간의대 동쪽에 집터를 보게 하고 간의대는 북쪽으로 옮기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공사에 임하여 왕은 “임금이 아들에게 자리를 전해 주고서 아들 임금과 더불어 같은 궁에 함께 거처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부왕이 이미 돌아가고 어머니가 계실 때 아들 임금이 어떻게 한 궁에서 모시고 있을 것이냐.”는 이유를 들었다.²⁹⁾

후궁의 정확한 위치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간의대가 있던 자리라고 하였으므로 경복궁 후원 북쪽 일대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후궁 건설의 명이 있자 신하들로부터 강한 반대 상소가 잇따랐다. 반대 이유는 한 궁궐 안에 별도의 궁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고 이미 도성에 창덕궁이 있고 또 성 밖에 연희궁과 낙천정이 있으므로 궁궐 안에 별도의 궁을 두는 것은 민력을 낭비라는 것이었다. 반대 상소는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으나 왕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일을 맡은 제조에게 공사 진척을 서둘렀다. 2월에는 船軍 1천 2백 명과 防牌 2백여 명을 거느리고 강원도 春川 등지에 가서 목재를 베게 하였다. 2월말에는 베어 놓은 목재가 1천 8백 개이고 이미 강변까지 옮겨 놓은 것도 7백 여 개인데, 이 작업 중에 죽은 사람이 3명이고 병이 난 사람도 22인이나 되었

다.

그러나 4월에 사간원에서 농사철을 맞아 가뭄의 징조마저 있으니 공사를 정지할 것을 청하자 왕도 할 수 없이 공사를 일시 정지토록 하였다. 다시 7월이 되자 왕은 공사 자체를 정지하는 명을 내린다. 7월에는 벌써 여러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몇 차례 기우제를 지낸 뒤였다. 이후에 후궁의 건축공사가 계속되었다는 기록은 더 이상 실록에서 찾을 수 없다. 아마도 7월의 가뭄이 있고 나서 왕은 신하들의 반대에 못 이겨 공사 자체를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후궁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약 1년 반이 지난 세종 26년 12월, 왕은 연희궁의 수리를 명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세종 27년 정월 이튿날, 거처를 연희궁으로 옮겼다. 이로부터 왕은 재위 말년까지 연희궁과 경복궁을 오가며 지냈으며 대부분의 기간을 연희궁에서 머물렀다. 나라 일은 세자가 경복궁에 남아 처리하였고 국가적 의례 역시 거의 세자가 도맡았다. 재위 말년이 되어서 왕은 경복궁에는 거의 상주하지 않고 연희궁에 있거나 종종 대군의 집에 머물곤 하였는데 결국 세종 31년 2월 영은대군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세종 말년에 왕이 경복궁을 멀리한 표면적 이유는 국정을 세자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일 수 있지만 후궁 건설이 좌절된 후에 의도적으로 경복궁 거주를 기피하여 신하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왕과 신하들의 의견 대립은 이미 세종 24년 세자에게 국사를 위임하려는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왕은 세자가 국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자를 돕는 詹事員이라는 관리를 두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제도상에 없는 것이라는 신하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했다. 또 세자가 신하로부터 조하를 받을 때 세자의 좌향을 남향하도록 명하였으나 이것도 중신들의 반대로 서향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후궁 건설에서는 앞에서 인용한 대로 거의 2개월 여에 걸친 끈질긴 반대 상소에 시달렸다. 이후 왕과 신하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더 첨예한 상태로 진전되었는데 그 발단은 왕의 불당 건립 계획 때문이었다.

세종은 재위 15년경만 해도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 불교에 대해 억제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점차 불교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28) 「세종실록」 권100, 세종25년 5월 병인. 한편 이보다 앞서 세종 23년에는 동궁 궁우(宮宇)가 얇고 드러나서 거처하기에 마땅치 아니하므로, 자선당(資善堂) 밖에다 따로 한 궁(宮)을 지어서 살게 하려 한다고 하여 신하들의 동의를 얻었다. 아마도 계조당 건물의 계획은 이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29) 「세종실록」 권99, 세종25년 1월 기미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자세는 세종 18년 흥천사의 사리각 수리에서 나타났으며 이후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에서도 드러났다. 세종 20년 실록에는 왕의 이러한 자세 변화를 이렇게 기술해 놓았다.

“흥천(興天)·흥덕(興德)의 두 절에서는 아동들은 학습(學習)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근년에 조금씩 불교를 믿으심으로 이런 명령이 있는 것이었다.”(『세종실록』 권83, 세종20년 10월 임신)

아동들은 학습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와서 왕이 불교를 믿는 듯한 인상을 주변에 심어주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세종21년에는 흥천사 사리각에서 경찬회를 열었는데 역시 신하들의 반대 상소에도 불구하고 왕이 허락하여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반대 상소에는 당시 대신 중에 가장 원로격인 영의정 황희까지 가세했지만 왕은 들어주지 않았다. 세종 28년에는 병중인 왕비를 위해 불경을 편찬하기로 하자 역시 신하들이 크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 때도 왕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였다.

세종 30년이 되자 왕은 문소전 옆에 불당을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이 밝힌 건립 계획은

“문소전(文昭殿) 서북 빈 땅에 한 불당을 짓고 일곱 층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 제도는 정당(正堂)이 한 칸이고, 동서의 낭사(廊舍)가 각각 세 칸이며, 부엌이 세 칸이어서, 이것에만 그칠 뿐이다.”(『세종실록』 권121, 세종30년 7월 신축)

는 것이었다. 세종은 경복궁에 문소전을 짓고 이듬해인 세종 15년에 문소전 내의 불상을 치우도록 명령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5년이 지나서 다시 문소전 옆에 불당을 짓고자 한 것이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중신들로부터 격렬한 반대 상소가 나왔다. 신하들의 반대가 심하자 왕은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 7월 18일에는 불당을 궁궐 밖에 세우도록 명을 바꾸었다. 새로 잡은 불당의 터는 경복궁 성 북쪽 바깥 문소전 가까운 곳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³⁰⁾ 그래도 신하들의 반대는 수

그러들지 않았다. 궁궐 안이던 밖이던 나라에서 불당을 세우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는 왕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불당 건립을 강행했다. 신하들의 계속된 반대가 이어지자 8월 4일 왕은 경복궁을 떠나 임영대군 집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왕의 강경한 뜻에 신하들도 더 이상의 반대를 하지 못하였다. 이 때의 사정을 실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처음에 불당을 짓기를 명령할 때에, 임금이 비록 반드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을 알았으나, 의례로 하다가 그만두리라고 생각하였는데, 臺諫·集賢殿·政府·六曹·대소文臣·國學 諸生에서 樞府 武臣에 이르기까지 모두 극진히 간하여 기어이 청을 얻으려 하니, 임금이 불쾌하여 撤膳한 것이 여러 번이었고, 傳旨할 때에도 禪位할 뜻을 조금 비치었으며, 또 移御한다는 명령이 있을 때, 여러 신하가 억지로 누름을 황공하게 여기어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세종실록』 권121, 세종30년 8월 정사)

이런 곡절을 거쳐 그 해 12월 5일 드디어 불당이 건립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성대한 경찬회가 열리고 종친 대군들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지어진 불당에 대해서 실록은 ‘제도가 사치와 화려함이 지극하여 금과 구슬이 눈을 부시게 하고, 단청이 햇볕에 빛나며, 붉은 비단으로 재봉하여 기둥에 입혀서 柱衣라고 이름하여 더럽혀짐을 방지하고, 향나무를 새겨 산을 만들고 금부처 세 軀를 그 가운데 안치하였’다고 적었다.³¹⁾

세종 말년의 불당 건립은 왕과 신하 사이의 의견 대립을 극단적인데 까지 몰고 갔고 신하들의 끈질긴 상소에 대해 왕은 궁궐을 비우고 임영대군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태도로 나왔다. 결국 이런 왕의 단호한 태도에 놀려 더 이상의 반대를 하지 못하였다. 이 불당은 세종에서 문종 때까지 문소전의 제향에 맞추어 국가적인 제례를 거행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³²⁾

세종은 재위 중반까지 신하들보다 앞서서 여러 경전에 입각해서 제도를 바로 잡고 조선왕조의 통

단종 원년 9월 무인)으로 미루어 궁성 북쪽 문소전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31) 『세종실록』 권122, 세종30년 12월 정사

32) 그러나 뒤를 이은 단종이 즉위하자 건물을 철거하라는 신하들의 압력에 못이여 단종 2년에는 철거되고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단종실록』 7권, 단종원년 9월 무인)

30) 불당의 정확한 위치는 언급이 없지만, 실록 등에 의하면 경복궁성 북쪽에 있다(『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갑술)든가 ‘불당이 원묘와 가까이 있다(『단종실록』 권7,

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진력하였다. 그러나 세종 자신이 피력하였듯이 재위 25년이 되고 나서는 병을 구실로 하여 정사에서 벗어나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쳤다. 세종은 이따금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줄 뜻도 비쳤다. 이미 선왕인 태종 때 그러한 전례가 있었으므로 세종도 그러한 전례를 구상한 듯하다.

세종 25년에 왕은 47세 되었고 세자는 30세였다. 왕으로서의 국사를 젊은 세자에게 위임하고 한가로운 여생을 꿈꾸었는지 모른다. 또한 이미 세종 20년경부터는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 자세를 보였다. 여기에는 제도를 바르게 하고 국가 백년 대계의 통치들을 마련하는데 진력했던 젊은 시절의 국왕 세종과는 다른 개인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그러나 세종의 경우 실제 전위를 하지도 않았고 또 경복궁 안에 후궁을 지으려는 계획이나 불당 건립도 실현하지는 않았다. 그 배경에는 신하들의 강경한 반대가 일차적인 원인이 되었다. 왕과 신하 사이의 갈등에서, 명분을 강조하는 신하들의 주장이 우위를 점하는 구도는 여기서도 잘 드러나 있으며 이것은 향후 조선왕조의 궁궐 건설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하나의 전례였다.

한편 세종의 입장에서 궁궐 내에 후궁을 짓거나 불당을 세우는 일이 그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경복궁의 면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반영되었는지 모른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왕조에서 왕 자신이 궁 안에 제도에 맞지 않는 후궁을 짓고 불당을 세운다는 것은 분명히 후대에 비난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이점에서 세종은 자신의 욕심을 끝까지 관철하지 않고 양보하였다. 말년에 와서 경복궁을 떠나 연희궁이나 대군들의 집을 오가며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세종이지만, 경복궁에 관한 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왕조 정궁으로써의 격식을 훼손시키는 일을 세종 자신이 저지르지는 않았던 셈이다. 재위 말년에 가진 개인적인 욕심을 포기하고 경복궁을 법도에 맞는 궁궐로 남겨둔 점은 조선왕조 궁궐사에서 기억되어야 할 세종의 또 다른 업적이라고 생각된다.

6. 결 - 세종조 경복궁 수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세종 9년부터 25년까지 끊임없이 이어진 경복궁의 건물수리와 신축은 결국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경복궁을 군주가 거처하는 궁궐로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궁궐의 여러 시설들이 오래된 여러 의례를 거행하는데 적합한 곳으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궁궐 성벽 네 군데 성문을 내고 성문을 수리하는 것은 군주가 거처하는 궁궐에 필요한 격식을 갖추는 작업이었다. 전에 없었던 동궁을 궁궐 안 동편에 새로 마련하고 문소전과 선원전을 조성함으로써 선왕에서 국왕으로, 그리고 왕세자로 이어지는 왕실의 법통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천하에 과시할 수 있었다. 보루각을 설치하고 흠경각을 지어 우주의 운행과 질서에 맞추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군주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교태전을 지음으로써 만물이 교감하듯이 군주와 신하가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결국 군주의 위상 강화였으며 경복궁을 통해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의례의 세부 절차를 하나하나 정해서 고전의 법도에 맞게 차질 없이 각종 의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종조 내내 예조를 중심으로 한 중신들의 과제였다. 아울러 궁궐 내에서 이들 의례가 무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였다. 세종조에 거듭해서 일어난 각 건축물의 수리는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특히 사정전은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전각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그와 함께 강녕전과 사정전 일곽은 창건 시와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의례의 정비와 경복궁의 수리는 서로 맞물리어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졌으며 사정전과 강녕전 일곽 수리를 통해서 그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세종조의 경복궁 수리를 통해서 경복궁은 드디어 조선왕조의 정궁으로써 그 위상을 확립할 수 있었다. 창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왕실의 혼란에 휘말려 궁궐로서의 존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복궁은 세종에 의해 정궁으로서 거듭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국초부터 시작되어 세종 15년에 재연된 경복궁 터의 길흉논의를 과감히 극복하고 경복궁을 왕조 정궁으로 굳혀 나간 점에 세종의

결단이 돋보인다.

재위 25년 이후에 와서 궁 안에 후궁을 세우려고 하고 또 불당을 건립하려고 한 왕의 계획은 신하들의 강경한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세종은 국사를 세자에게 일임하고 경복궁을 떠나 연희궁에 머물거나 대군들의 집을 옮겨 다는 것으로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무리하게 자신의 건물 조성 계획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명분에서 앞서는 신하들의 주장이 결국 관철되고 마는 조선왕조 궁궐 조성과정의 한 단면을 여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후궁이나 불당이 지어지지 않은 궁극적 결단은 세종 자신의 몫이었다.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접고 경복궁의 면모를 법도에 맞는 조선왕조 정궁으로 완성시킨 모든 공로는 세종에게 돌아가 마땅할 것이다.

왕이 후궁 건설을 시도하고있을 때 사헌지평李宗謙이

“경복궁은 태조께서 창건하실 때 제도를 자상하게 하였고, 전하(세종)께서 보수하실 제 규모가 잘 갖추어져서 다시 손댈 곳이 없사옵고”(『세종실록』 권99, 세종25년 1월 기사)

라고 한 말은 경복궁에 대한 세종의 업적을 잘 함축하고 있다.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 국역조선왕조실록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古蹟篇」, 1965
- 이강근, 경복궁, 대원사, 1998
- 郭淳熙, 宮闕運營을 통하여 본 朝鮮前期 景福宮의 配置特性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衫山信三, 韓國の中世建築, 相模書房, 1985
- 김동욱, 조선초기 창건 경복궁의 공간구성, 건축역사연구, 제15호,
- 홍석주, 朝鮮朝 光海君代의 宮闕建築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五禮를 중심으로, 一潮閣, 1991
- 勤政殿實測調査報告書, 文化財廳, 2000

King Sejong's role in the repair of the Kyeongbok Palace in the early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Kim, Dong Uk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e Kyeongbok Palace was completely renew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the fourth King of the Joseon Dynasty(1392-1910). The repair was done for the two main purpose; one was to obtain the dignity of the main palace of the dynasty, the other was to make the palace suitable for the performing of the various ritual ceremonies.

It was under the reign of King Sejong that every detail of the procedure of the royal ritual ceremony. The procedure of ritual ceremony changed the buildings of the palace. The quarter of Sajeong-jeon, King's office, was changed remarkably from the original form as the building became the beginning and ending point of King's moving during the ritual ceremonies.

The site of the palace had ill reputation from the point of geomancy since its establishment. King Sejong ignored the rumor and kept the palace as usual. In his later year's, Sejong had tried to build a detached quarter and a Buddhist shrine in the palace. But he had to give up his plan because of the retainer's strong opposition. The original layout of the Kyeongbok Palace could be remained as the King renounced his controversial personal wish. King Sejong deserves a full credi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Kyeongbok Palace as the main palace of the Joseon Dynasty.